#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과 과제

**김정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1]

## 1. 수능시험의 의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고 줄여 씀)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도 같이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기 위하여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면, 교육공동체가 할 일은 역기능을 가능한 한 예방하여 순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행 과정을 늘 검토하여 가지런하게 되도록 정비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할 때도 외형보다는 목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은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을 오직 한 길 대학입학의 준비과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어느 학교급 때 또는 전체 학년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해도, 최종 결산인 대학입학시험에 성공하지 못하면 학업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버린다. 이런 교육공동체의 집단사고를 비합리적이라고 폄하할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기층문화가 이렇다면 합리성만으로 현실을 보기는 어렵다.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나 입시 중심 교수·학습이 비교육적이라는 주장 또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립적인 긴장 관계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나무라는 것이 교육 발전에 얼마나 의미 있겠는가? 그러한 원론적인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의제를 대전제로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전략을 내세우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올바른 비전을 내세우더라도 시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한꺼번에 변형시키기 어려운 것이 교육문화이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대학입학시험 정책은 대학별단독고사(1945년 – 1968년) → 예비고사(1969년 – 1981년) → 학력고사(1982년 – 1993년) → 수능시험(1994년 – 현재)으로 변천해 왔다. 이 정책의 초점은 주로 '정부의 관여 정도'라는 거시적인 정책 기획과 '시험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미시적인 정책 실행이며, 그 배경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억제, 학생의 시험 부담 경감' 등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2]

그러면 지금까지 15여년을 계속해 온 수능시험의 목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www.kice.re.kr).

---

1) 이 논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필자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2) 본고의 논점은 수능시험 자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 정도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수학능력이란 대학의 학문 연구의 기초가 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사고력(思考力)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비고사와 학력고사의 한계점을 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시험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학습하였던 지식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 지식의 원천은 국가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였다. 학생들은 교과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주로 사실이나 개념 지식) 자체를 출제하였다. 그 결과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과목의 교과서 단원별 내용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었었다. 이렇게 어떤 과목이나 단원을 넘어서는 통합적 사고보다는 교과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시험은 학문을 하기 위한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 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사교육시장의 이른 바 '족집게' 라는 비법까지 성행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대수능시험은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대로 현행 수능시험이 대학수학 적격자 선발에 필요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현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제시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 2. 수능시험의 현황

### 가. 수능시험의 구성 체제

수능시험의 현황은 그 구성 체제와 점수 표시 방법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수능시험의 구성 체제는 출제 근거와 영역, 과목 선택, 문항 구성 원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능시험의 출제 근거는 국가 교육과정이다. 마치 국가 정치를 헌법에 맞도록 하듯이, 초 · 중등학교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학교의 헌법대로 해야 된다. 개별 학생의 실제적인 대학수학능력 여부는 대학에 진학한 뒤 나타나겠지만, 입학 전형을 위한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판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과정과 2 · 3학년의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고교 1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고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내신 성적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수능의 출제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수능시험의 출제 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7개 대영역 → 51개 과목 → 1,118개 문항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표 1 참조) 교육과정 중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정서 실기 교과는 수능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시험 대상 과목 설정은 고등학교 교과교육 운영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한 번 정하고 나면 추가하기도 제외시키기도 매우 어렵다.

셋째, 수능시험의 선택은 수험생의 자유재량이다. 현행 51개 시험 영역과 과목 중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수험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과목 소량 선택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각각 4개 과목 이하로, 직업탐구는 3개 과목 이하로, 제2외국어 · 한문 중에서는 1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3] 수험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2008. 1. 22.)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 2012학년도(2011년 시행)부터 선택과목 축소(탐구영역과 외국어 영역에서 최대 2과목 선택)를 하고, 2013학년도부터 영어 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여 상시 능력평가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수능제도 변경은 3년 전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발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그 구체적인 시행안을 올해와 내년 중에 발표해야 한다.

등을 참고하여 영역/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넷째, 수능시험의 문항의 특징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묻는 것이다. 통합 문항에는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과 같이 범교과 소재를 활용하는 전체 통합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와 같이 과목 내의 단원 간 통합이라는 부분 통합도 있다. 예를 들면 언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특정 학년이나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 · 사회, 과학 · 기술, 문학 · 예술, 생활 · 언어 등 범교과적 내용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다른 한 가지는 문항 내용에서 이론과 사실을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탐구 영역은 이론적인 지식이나 사실적인 지식을 그대로 출제하여 기억 여부를 묻지 않고, 이론을 바탕으로 사실을 이해하거나 사실에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아야(장기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취지의 사고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5지 선다형 문항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또 다른 목적인 학생 선발에 필요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다형이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언어와 영어의 말하기 · 듣기도 듣고 나서 답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다형 문

표 1.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요

| | | | | | |
|---|---|---|---|---|---|
| 기본성격 | •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범교과적 소재 혹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함 | | | | |
| 평가영역 및 선택 | • 임의선택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br>•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 | | | | |
| 영역별 시험체제 | 영역 | 출제과목 | | 문항수 | 문항특성 | 문항형태 |
| | 언어 | 언어 | | 50 | 범교과 소재 활용 | 5지선다형<br>말하기 듣기<br>17문항 포함 |
| | 수리 | '가' | 수학 I 12문항<br>수학 II 13문항<br>선택 5문항 | 30 | | 5지선다형 (70%),<br>단답형 (30%) |
| | | '나' | 수학 I (100%) | 30 | | |
| | 사회 탐구 | **11개 과목 중 택 4 이내**<br>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br>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br>한국 근 · 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br>정치, 경제, 사회 · 문화 | | 과목당 20 | 과목내의 단원별 개념 및 단원 간 통합 문항 | 5지선다형 |
| | 과학 탐구 | **8개 과목 중 택 4 이내**<br>물리 I , 화학 I , 생물 I , 지구과학 I ,<br>물리 II , 화학 II , 생물 II , 지구과학 II | | 과목당 20 | 과목내의 단원별 개념 및 단원 간 통합 문항 | 5지선다형 |
| | 직업 탐구 | **17개 과목 중 택 3이내**<br>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br>컴퓨터 일반, 수산 · 해운 정보 처리, 농업 이해,<br>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br>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br>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br>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 | 과목당 20 | 과목내의 단원별 개념 및 단원 간 통합 문항 | 5지선다형 |
| | 외국어 (영어) | 영어 | | 50 | 범교과 소재 활용 | 5지선다형<br>듣기 · 쓰기 |
| | 제2외국어 /한문 | **8개 과목 중 택 1**<br>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br>러시아어 I , 아랍어 I , 한문 | | 30 | | 5지선다형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수험번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 | | |
|---|---|---|---|---|---|---|---|---|
| 12345678 | 홍 길 동 | | 900101-1087654 | | 한국고 (0009) | | | |
| 구 분 | 언어영역 | 수리영역 | 외국어 (영어) | 과학탐구영역 | | | | 제2외국어/ 한문영역 |
| | | '가' 형(미분과 적분) | 영역 | 물리 I | 화학 I | 생물 I | 지구과학 I | 일본어 I |
| 표준점수 | 131 | 137 | 141 | 53 | 64 | 61 | 73 | 69 |
| 백분위 | 93 | 95 | 97 | 75 | 93 | 87 | 97 | 95 |
| 등급 | 2 | 2 | 1 | 4 | 2 | 3 | 1 | 2 |

그림 1.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예시)

항이지만, 수리의 단답형만은 수험생이 숫자를 직접 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선다형이 아니다.

## 나. 수능시험의 점수 체제

수능시험 점수는 대학입학전형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표시 방법은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다. 점수 표시는 시험의 성격과 그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교육적 이념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현행 수능시험은 과거의 학력고사나 초기 대수능(과목 선택형이 아니었던 2004학년도까지)과 성격과 선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 표시 방법도 같을 수 없다. 학력고사는 계열별로 모든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했으므로 과목별 점수는 원점수로 표시하였고, 대학은 총점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과목을 좀 잘하지 못해도 다른 어떤 과목을 잘하면 총점을 올릴 수 있었다.

전면 선택형인 현행 수능시험에서 총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탐구 영역 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간에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목의 원점수는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행 수능시험은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 총점 대신 과목별 점수'라는 방법으로 점수 표시를 한다. 이런 배경에 따라 지금까지 점수 표시는 '원점수(2004학년도까지) → 표준점수+백분위+등급(2005학년도~2007학년도까지) → 등급(2008학년도) → 표준점수+백분위+등급(2009학년도)으로 바뀌어 왔다.

2008학년도에는 등급만 표시하였으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등급만이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된다.[4] ([그림 1])

표준점수와 백분위 및 등급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자. 먼저 표준점수를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영역/과목이 임의선택이어서 각 영역/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달라 영역/과목 간에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원점수로는 영역/과목 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도입한 것이다. 원점수는 시험 총점과 대비하여 몇 점을 받았는가 하는 정보만을 나타낼 뿐 개인 간 상대적인 비교나 개인 내 영역/과목 간의 비교는 어렵다. 반면 표준점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원점수를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바꾼 점수이다. 이렇게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즉, 표

4) 대학이 입학전형을 할 때 어느 것을 어떻게 조합하여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이다.

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역/과목별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점수를 구한다.

$$Z\text{점수} = \frac{(\text{수험생의 원점수}) - (\text{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평균})}{\text{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표준편차}}$$

② 위에서 얻은 점수를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표준점수) = (점수)×(해당 영역/과목의 표준편차)+(평균)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평균 100, 표준편차 20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평균 50, 표준편차 10

〈예〉 과학탐구 영역 생물Ⅱ에서 원점수 38점(원점수 평균 19.1 표준편차 9.2)을 받은 수험생의 생물Ⅱ 표준점수는

$\frac{38-19.1}{9.2} \times 10 + 50 = 70.54$에서 반올림(소수첫째자리)을 한 71점이 된다.

표준점수는 평균과의 차이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낸 점수이므로 만점이 없고, 선택과목의 원점수 분포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은 다를 수 있다.

다음에 백분위를 보면, 영역/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예를 들어 백분위가 95라고 하면,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95%나 됨을 의미한다. 즉, 자기 성적이 전체 상위 5%안에 들었다는 뜻이다. 이 백분위는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에 근거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한 수험생의 표준점수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의 수})+(\text{동점자수}) \div 2}{\text{해당영역 / 과목의 수험생 수}} \times 100$$

〈예〉 수험생(N=100)의 표준점수 분포가 〈표 2〉와 같다고 할 때, 표준점수 92점인 수험생의 백분위는

$\frac{73+12\div2}{100} = 79$가 된다.

표 2. 점수 분포 예시(N=100)

| 표준점수 | 인원수 |
|---|---|
| 98 | 5 |
| 93 | 10 |
| 92 | 12 |
| 89 | 5 |
| : | : |
| : | 73명 } : |
| : | : |
| 62 | 2 |

끝으로 등급에 대해 알아보자.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데, 영역/과목별 전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까지를 2등급 등으로 하여 〈표 3〉과 같이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정수로 표기된 표준점수로 결정하며, 등급 구분

표 3. 등급별 백분율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백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 누적 백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점수에 놓여 있는 동점자에게는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영역/과목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백분위가 동일하더라도 표준점수가 다른 경우 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

## 3. 수능시험의 쟁점과 과제

수능시험은 이제 국가적인 대사가 되어 버렸다. 이 시험을 둘러싼 쟁점에는 교육적 의미만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보는 이념적인 가치까지 들어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수능 관련 이해 관계자는 직접 당사자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더하여 사회 일반까지 확대되며, 이 모든 집단을 지원하거나 조정할 정부가 있다.

정부는 수능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와 동시에 대학의 합리적인 전형을 지원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수능시험 출제에 참여하면서 각각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변별력과 신뢰성을 갖춘 전형 자료를 요청한다. 사회는 수능시험의 안전한 시행과 더불어 사교육 줄일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수능시험은 정부의 대입시 정책의 한 부분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변별력 있고 신뢰할 수있는 전형 자료 제공을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능시험의 목적 가치는 대학 수학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차적인 사고력 평가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교육 공동체가 수능시험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 간 쟁점이 유발되고, 때로는 본질적인 목적 가치보다 수단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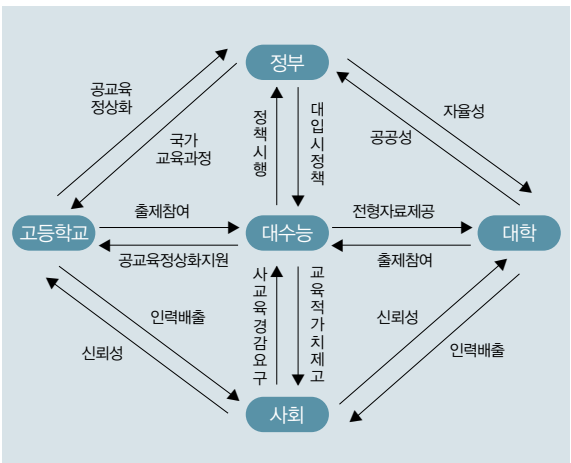


그림 2. 수능 연계체계

지난 과정에서 수능시험에 대한 사회적 쟁점은 주로 난이도와 과목 간 형평성 및 정답 이상 등이었다.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의 이른 바 물수능 · 불수능이라고 하던 난이도의 급격한 변화로 학생들이 경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 일이나, 과목 간 어렵고 쉽기가 달라 선택에 따른 우연성이 너무 크다는 논란도 있었다. 여기에 2004학년도의 언어영역 복수정답과 2008학년도 물리 영역의 복수 정답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었다. 시험을 보아야 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고, 문항 오류나 정답 시비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수능시험 출제 기관은 전공 교수와 고교 교사로 구성된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통해 문항을 구성하고, 시험 본 뒤에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여 문항의 잘잘못 여부를 학계 자문을 거쳐 심의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물론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합리적인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수능시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 정책은 사회 · 문화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대입 정책 자체도 어떻게 개편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현행 수능시험 자체에만 논의를 한정시켜 개선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수능시험의 목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학계와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라는 변별력과 사회가 바라는 안전성도 결국 미래 한국인의 바람직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대수능

시험이 그런 본질 가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난이도나 정답 시비보다 선행하는 가치인데, 지금까지 이런 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터한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능시험 출제에 참가하여 우리 학문적 수준을 문항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학계가 문항을 분석하여 다음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공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계는 수능시험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공공의 학문적 책무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단 가치에 대한 쟁점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사회가 공적인 시스템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기를 제안한다. 오답과 복수 정답  가능성이라고 하는 정답 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이의신청 절차라는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제기된 문제는 어떤 것이든 학계의 공론을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을 거친 결론은 견해가 다른 경우라도 인정해 주어야 공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시스템 운영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특히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와 교사로 구성된 대수능시험출제위원단은 학문적으로 정확한 출제를 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갖고 있지만, 그 문항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출제권도 역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문항에 대한 학문적 쟁점이 비등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출제위원단이 최종 판단을 하고 사회는 그 공적 시스템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수능시험에 대한 논의는 그 근거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며, 시험의 주체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학문적 진리라는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다를 수 없지만, 그 폭과 깊이까지 꼭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항에 대한 논쟁을 할 때는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는 고등학교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미칠 파장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뜻이다.

현행 수능시험은 5지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통합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하여도 학습자의 심층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한 시험만으로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대학이 수능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학계와 사회가 협력하여 수능시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입학시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며, 현행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타당한 논의를 통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계속 찾아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필·자·소·개

**김정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화여대, 인하대 강사, 사회교과교육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투자자교육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과교육학신론」(공저), 「사회생활의 이해」(공저) 등이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